

광주매일신문



kjdaily.com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음력 2월 25일) 대표전화 (062) 650 - 2000

총선 D-7···민형배 59.8% vs 이낙연 16.5% '격차' 여전

●광주매일신문등 5개社 5차 여론조사



민형배, 숲연령대서 앞서…이낙연, 50대 한자릿수 비례대표 정당 조국혁신당 45.3%·민주연합 26.5%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 배 후보가 또 다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또한 조국혁신 당이 45.3%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오차 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따돌리며 돌풍 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3·4면

광주매일신문이 광남일보·남도일보 ·전남매일·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 에 의뢰해 광주 광산을 선거구 대상 제2 2대 총선 5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형배 후보가 59.8%, 이낙연 후보가 16.5 %를 얻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 간격차는433%p로4차여론조사(민형배 63.0%, 이낙연 19.0%) 때 격차(44.0%p)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일 오후 광산구 쌍암공원 일원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광주에코바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이크 회원들이 자전거에 4·10 총선 홍보물을 부착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어 국민의힘 안태 욱후보7.7%,진보당전주연후보6.7%,녹 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24% 순이다. 지지 후보없다38%,잘모름31%다.

민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 대표 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

서 70%가 넘는 지지를 얻었으며 40대와 60대에서는 60% 이상, 30대와 70세 이상 에서만 40%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 대표는 30대에서만 30%가 넘 는 지지를 얻었고 50대에선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선 조국혁신 당이 45.3%를 얻어 26.5%에 그친 더불어 민주연합을 18.8%p 차이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는 지난 4차 여론조사 (조국혁신당 40.8%, 더불어민주연합 30 .0%) 격차(10.8%)와 비교할 때 8.0%p 더 벌어진 수치다.

이어 국민의미래 8.7%, 새로운미래 7 .5%, 녹색정의당 3.2%, 개혁신당 3.0% 순 이다. 4차 여론조사 때는 새로운미래 8.1 %, 국민의미래 7.9%, 개혁신당 3.0%, 녹 색정의당 1.5%였다.

광산을 선거구 여론조사는 3월31일-4 월2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 대 상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98.8%) 와 유선RDD(1.2%) 자동응답조사로 진 행됐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 신뢰 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전남권국립의대' 공모 방식으로 '단일대학' 선정

김영록 지사 담화문 "시간상 통합의대 추진 불가" 4대 원칙 기조 정원 200명 2026학년도 신설 목표

정부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남도가 그동안 추진 을 사실상 폐기하고 공모 방식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 '단일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완결 성, 도민 건강권, 지역 상생발전, 공정성 확보 등 4대 원칙을 기조로 2026학년도 신설(정원 200명)을 목표로 단일 의과

대학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이 같은 내용 해온 '통합의대'(목포대+순천대) 방안 을 골자로 한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했

> 위해 어느 대학에 설립할 지 공모 방식 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통합의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국립의대 설립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전남도는 정

협의해 왔으며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 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의대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 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 당국자와 (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이 같은 전남도의 의대 신설 정책 기 조 변화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윤석 열 대통령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발표 당시 이 를 공식화하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

> 김 지사는 "의과대학 규모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의대 수준

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 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규모 와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개괄적인 의대 설 립 일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의대 설립 지역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모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 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 건강권 확 보 ▲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 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 설팅 업체 위탁 등 4개 원칙을 핵심 기조 로 설정했다.

김 지사는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 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 학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 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 것 인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여러 사안을 감안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위탁 기관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추진 과정에서 건전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 는 것은 의대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 이라고 의대 유치를 놓고 지역·대학간 과도한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경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는 우수한 인 재들이 지역 국립의대를 졸업해 전남에

든든히 지켜줄 수 있도록 전남도 국립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립의대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강소전문병원 등 도내 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역 의료체계 를 완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 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향후 공모 일정에 대해 김 지사는 "(2 026학년도 대입 일정 상) 올해 안에 (선 정이) 끝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 /김재정기자

Today

5·18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장갑수와함께 걷는 길…고흥 14면 KIA,원정경기도 '응원단' 파견 16면



안 쓰는 **플러그 뽑기**

9.6 kWh/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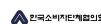


구글, 네이버에 검색

○ 한전 에너지캐시백

QR 코드 스캔





17,410원

(34kWh)

(67kWh)



(100kWh) 25,990원 10,000원 35,990원 30,600원

6,700원 24,110원 > 42,480원